

성명서

미얀마 인권상황 특별 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따나

인권이사회

제19회차

2012년 3월 12일

의장님, 각료님들, 존귀한 대표님들, 신사, 숙녀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미얀마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합니다. 지난 2011년 4월 1일 건국 이후, 미얀마 정부는 그간 새로운 정책 및 법안의 채택, 그리고 새로운 국내 기관과 단체의 설립을 야기한 몇 가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금년 2월에 미얀마를 다녀와서, 저는 미얀마의 인권상황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야 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빠르게 개혁되고 전진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도 묵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양하고 긍정적인 발전이 그저 단순히 정부 당국의 재량에 근거하여서는 안 되며, 개혁을 위한 투명성, 예측가능성, 지속성을 가지는 보다 민주적인 제도적 접근을 기반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루어 온 발전이 다시 퇴보할 위험성 역시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께 전달하는 이 보고서에서는 미얀마의 주요 발전들뿐만 아니라 미결의 도전과제들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미얀마 정부와 국제사회가 진지하게 고려하고 이행하기를 격려하고자 하는 권고들 역시 담겨 있습니다.

의장님,

시초에 저는 국회에서의 활발한 법률개정 과정을 보고 힘을 얻었습니다. 중대한 법률 개정이 이미 이루어 졌거나, 개혁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3월9일 대통령이 노동기구 법 (Labour Organization Law) 에 서명하면서 이 법은 시행되었고, 노동부의 국장이 최고등기소장(chief registration officer)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평화시위 및 집회법을 비롯하여 정치 정당 등록법의 개정안 또한 채택되었습니다. 다른 법안들과 함께, 수정된 교도소법, 새로운 방송법 및 사회보장법 등이 현재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발전들을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 법안들 중 몇 가지 조항들과 이것들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는 데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에 우려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가보호법, 불법결사법, 형법의 특정 부분, 텔레비전과 비디오법, 영화

법, 컴퓨터 공학과 발전법, 인쇄사업자와 출판서 등록법과 같이 그 전에 제가 국제인권기준에 온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법안을 개정하는 데 있어 명확성이 결여돼 있으며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법안들은 조직적으로 정부에 반하는 이들에게 적용되어져 왔습니다. 이 검토의 결론을 위해 진행 과정에 속도를 더하고 명확히 확정된 날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법안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과 상관없이, 법치주의를 옹호하고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효율적인 사법제도의 부재가 염려스럽습니다. 대법원과의 회의에서, 제가 본 것은 제가 이전에 한 권고를 받아 들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들과 현실격차에 대한 미약한 인식, 그리고 부족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국제인권법에 부합하도록 기본권과 인권을 수호하고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저는 사법부가 국제사회,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다른 기구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하도록 촉구합니다.

각료님들과 존귀한 대표 여러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저는 4월 1일에 있을 보궐선거가 정부가 개혁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진전이 있었는지 보여주는 데 있어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투표는 반드시 진정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고, 포괄적이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것입니다. 미디어 규제의 완화와 몇몇 정치정당, 특히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연맹”의 재등록을 야기한 정치정당등록법의 개정, 그리고 보궐선거에 이의를 제기하는 결정들과 같은 발전적인 일들이 좀 더 신뢰할 만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의 신용성은 선거당일로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 선거날, 그리고 선거 이후의 날까지 포함한 선거 과정 전체를 보고 판단될 것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제가 입수한 선거운동 변칙 사례들과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당들에게 제한을 가한 사례는 통합선거위원회에서 심각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덧붙여, 2010년의 선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언론의 자유가 온전하게 보장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미디어와 인터넷에 대한 통제의 완화와 추방된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금지령 해제, 그리고 저널리즘법을 개정하고 검열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하는 반면, 제가 지난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텔레비전과 비디오 법(1985), 영화법(1996), 컴퓨터 과학과 발전법 (1996), 그리고 인쇄사업자와 출판사법 (1962) 등 많은 법안에서 미디어와 좀 더 일반적으로 의견, 표현의 자유에의 제약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립된 국가언론위원회와 현재 준비 중에 있는 새로운 미디어 법 등이 언론의 자유와 검열폐지를 보장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미디어법을 기안하기를 격려하는 바입니다.

각료님들,

저의 지난번 국별 방문에서, 저는 작년 9월에 설립된 이후로 처음 국가인권위원회와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교토소 방문, 카친 주(Kachin State)에 있는 국내 이주민들 방문,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진정 사건 접수와 같은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현저히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듣고 고무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위원회의 구성, 역할, 기능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위원회가 완전히 독립적이고 파리 원칙에 부응한다는 표시가 없다는 점에 대한 걱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인권위원회의 위원들과 구성원들의 기술적이고 실질적인 능력을 증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위원회가 OHCHR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직무 훈련과 기술적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존귀한 대표님들,

저는 지속적으로 즉각적이고 조직적인 양심수의 석방을 요청해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최근 새로운 정부가 4번에 걸쳐 사면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면으로 인해 제가 이전에 다루었던 사례의 주인공이거나 제가 면회

했던 유명한 인사들 및 다른 사람들을 비롯하여 현저히 많은 수의 양심수들이 석방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이 중 몇몇 사람들을 만나보았고 그들은 정치적 진보와 민주화를 위하여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는 의지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면자들 중 일부가 종종 감시 당하고 미행당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저는 현재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의 숫자가 정보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다 포괄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양심수 숫자를 명확히 밝히고 그 숫자를 결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양심수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고 취합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 모두와 함께 폭넓고 공개적인 협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긴급한 문제로 받아들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하다면 국별 보고관인 저 자신과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미얀마에 있어서 가장 긴급한 도전과제는 가난과 식량 안보의 불안정입니다. 저는 오는 회계연도에 건강 분야 예산의 4배 증가와 교육 분야 예산의 2배 증가가 있을 것이라는 3월 1일의 대통령의 공표를 환영합니다. 개발과 경제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행해진 다양한 개혁에 고무되는 반면, 저는 지속적으로 국가 전반에 걸친, 특히 민족 접경 지역에서, 이런 권리의 박탈의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권리들은 미얀마의 민주적 과도기, 국가적 화해, 국내의 장기적 안정에도 똑같이 필수적인 기본권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민영화의 물결과 예상되는 외국 자본의 증가를 고려할 때,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계획과 함께, 저는 또한 토지의 몰수, 개발로 인한 이주, 또한 다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의 증가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환경 책임에 관한 국제 기준에 맞는 필요한 법적 제도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대규모의 에너지 관련 채취 산업에서 민간 기업과 국영 기업의 행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고, 그것에 맞서 보호하고 그것을 보상하는 것을 규율하는 체계입니다.

의장님,

각료 여러분,

군대가 자기방어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격 작전에의 참여를 금하는 대통령령에도 불구하고, 몇몇 무장한 민족단체들 간의 계속되는 분쟁은 민간인에 대한 공격, 재판없는 살해, 성폭행, 임의체포와 구금, 국내 강제이주, 토지 몰수, 아동용병 고용, 강제노동과 운반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군대와 비정부 무장단체들 모두에 의해 일어난 인권 유린의 혐의를 제보받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계속해서 정부와 비정부 무장단체 양쪽 모두가 지뢰를 사용하며 그 결과로 인한 사고가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점은 카친 주의 현재진행형의 분쟁입니다. 이 곳에서는 인권 유린에 대한 지속적인 소식이 들려 오고 있으며 이곳에 있는 강제이주되고 분쟁에 의해 영향받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우선순위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 대한 유엔과 유엔의 인도적 지원 협력자들의 정기적이고 독립적이며 예측가능한 접근이 진행되고 있는 협상과 관계없이, 아무런 부가조건 없이, 그리고 해당지역이 정부의 통제지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허용되어야 하는 점을 재차 강조합니다.

저는 또한 정부와 모든 무장단체들이 민간인, 특히 어린이와 여성의 보호를 보장해야 함을 다시 강조합니다.

대통령이 평화회담과 평화협상팀의 설립 그리고 공약이 포함된 다양한 초기 협정에 무장단체가 관여하도록 초청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저는 이런 정치적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면밀히 모니터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어떠한 항구적인 정치적 해결책도 분쟁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이전에 로힝기야 집단과 같은 민족적, 종교적 소수단체가 직면하는 조직적이고 지방특유의 차별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부가 소수 민족단체를 공식적으로 주요 담화에 참여시키고 장시간동안 지속되어 왔고 뿌리가 깊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함께 개발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차별을 근절하고 소수 민족의 권리 존중의 보장은 국가적 화해와 미얀마의 장기적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존귀한 대표 여러분,

저는 진실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을 비롯하여 정의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미얀마가 국가적 화해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독립성의 부재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한된 역량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런 수단을 확립할 것인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조언과 관점을 알기 위해 정부가 인권 유린의 피해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는 것이 중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었던 다른 나라의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저는 용서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무시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적 화해를 보장하고 미래의 인권유린을 예방하며 희생자들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최근 역사를 마주하고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인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는 또한 이런 과정에서 미얀마 사람들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장님,
각료 여러분,

저는 미얀마가 조약 기구, 보편적 정례검토 과정을 포함한 국제인권메커니즘과의 교류를 증가했고, 다양한 유엔 사무소와 개발 정책, 강제노동 그리고 소년병과 같은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 협력하는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맺음말로써, 저는 정부가 그들의 언약을 이행하고 그들의 국제인권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저는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국제사회, 특히 유엔과 협력하고 적절한 원조를 받기를 격려합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의 일에 관여하고, 발전 사항을 면밀히 주시하고 현재의

제재를 재검토할 때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미얀마 정부를 지원해야 합니다.

저는 저의 업무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최근의 국별 방문을 수락하여 준 정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미얀마인들의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 미얀마와 건설적이고 협조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싶다는 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